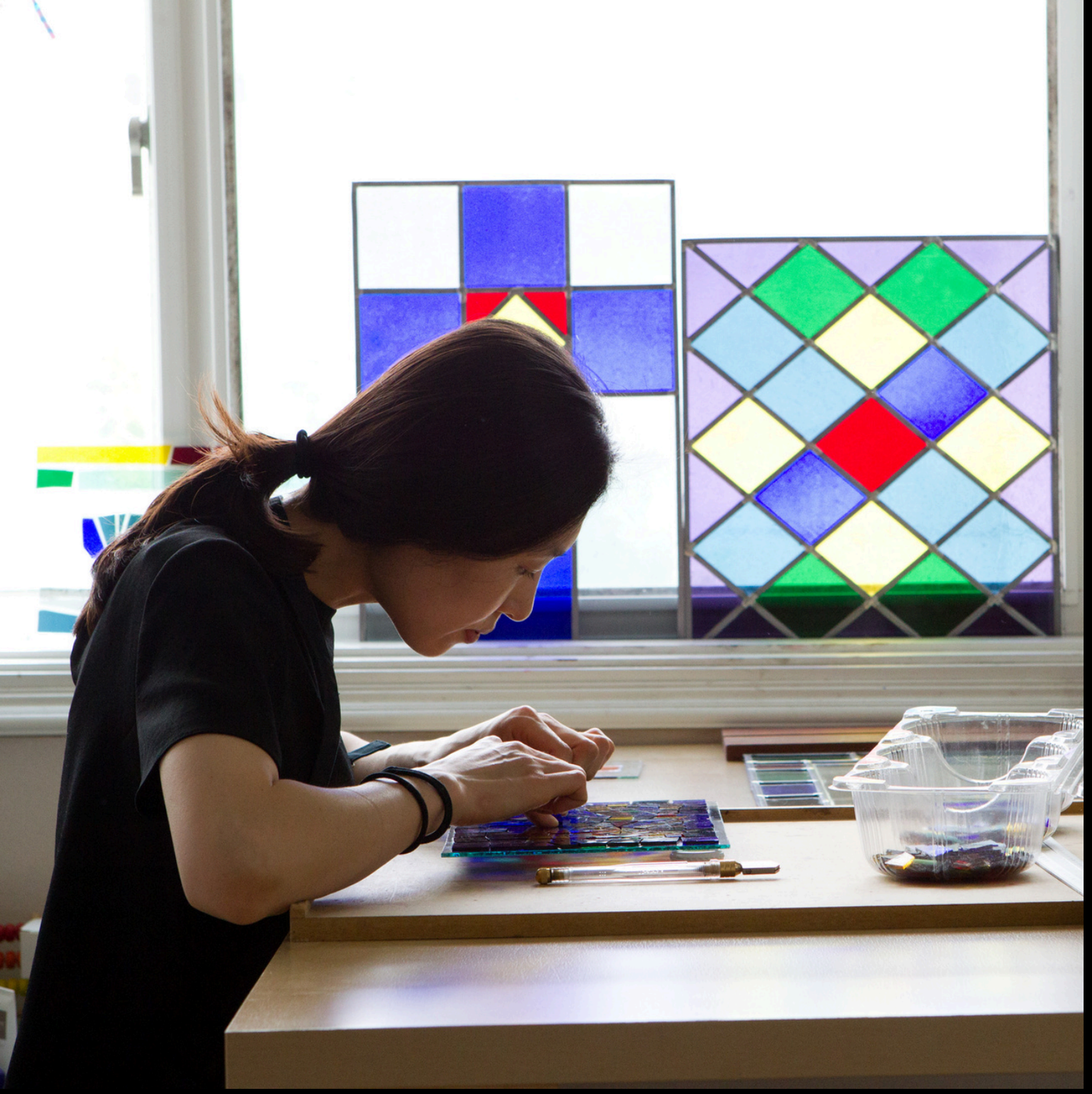


김미경 | 원예예술가 (TERRARIUM ARTIST)

김미경은 흙과 식물, 이끼 등 자연의 요소를 유리 용기 안에 구성해 하나의 작은 생태계를 만들어낸다.
테라리움 안에서 식물은 흙에 뿌리내리고 빛과 수분, 습도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고유한 생장 환경을 형성한다. 작가는 이러한 환경을 세심하게 조성하며,
서로 다른 요소들이 관계를 맺고 균형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세계가 형성되는 모습을 담아낸다.



강현지 | 유리작업자 (GLASS ARTIST)

유리의 투명함과 빛의 스밈을 통해
자연의 빛을 시각적 언어로 재해석한다.
유리라는 물질의 차가움 속에
따스한 빛의 온도를 담아 절기를 표현한 '빛사진'과
퓨징기법으로 제작한 유리오브제를 통해
빛이 머무는 감각적 공간과 시간을 기억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로지 박 | 회화작가 (VISUAL ARTIST)

로지 박(ROSIE PARK)은 한국과 뉴질랜드를 거점으로 다양한 도시와 새로운 장소들을 오가며 그 과정에서 마주한 경험과 감각을 회화로 풀어낸다. 자연과 미술사, 여정의 길목과 일상의 순간에서 영감을 받아 자연물과 인공물, 익숙한 것과 새롭고 다양한 것들이 공존하는 장면과 오브제를 화면에 담아낸다.

작가는 사물이 지닌 고유한 성격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 주목하며,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 사유를 화면에 함께 투영한다.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 사물과 감각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만나며 만들어 내는 관계를 통해, 다양한 요소들이 한 화면 안에서 어우러지는 조화와 균형을 탐구한다.